

3-1 봄봄(0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꼭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쫓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없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덩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속으로) 자란 듯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구 하니까…….

(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아!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

하고 두팔을 허둥지둥 내걸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쫙 내쫓고 인젠 참으로 죽나 보다 했다. 그래두 장인님은 농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찢찢 땀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눈엔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짹 움키고 잡아나쫓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어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 숨으로 손수 지저 주고, 호주머니에 혁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을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 아! 이놈아! 놈라,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술개미에 찬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땡겼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놈라, 놈, 놈, 놈, 놈라."

그래도 안되니까,

@ "애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혈레벌떡 하고 단숨에 뛰어 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덩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 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1.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삼** 것은?

- ①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나'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 ③ 농촌을 배경으로 남녀간의 순박한 사랑을 이야기하

고 있다.

- ④ 해학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 ⑤ 호흡이 짧은 문장을 사용하나 사건의 전개가 다소 지루하게 펼쳐지고 있다.

2. 이 글을 읽고 나올 수 있는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 것은?

- ① 종국 : 1930년대 순박한 시골청년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알아 봐야겠어.
- ② 현정 : '나'와 점순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 ③ 범수 : 장인과 '나'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갈등의 해결 양상과 주제를 연결시켜 봐야겠어.
- ④ 혜경 : 일제 강점기 가족 해체와 파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작품과 관련성을 조사해 봐야겠어.
- ⑤ 정현 : 작가의 토속적인 문체와 해학적인 어조에 중심을 두고 다른 작품을 감상해 봐야겠어.

3.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에 관해 가장 부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 ① 수중 : '나'는 우직하고 순박한 인물이야, 3년 7개월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점순이만을 바라보며 머슴살이를 하고 있잖아.
- ② 일국 : 점순이는 당돌하고 야무진 인물이야, 성례시켜 달라는 자신의 주장을 '나'에게 먼저 말하고 아버지와 갈등을 재촉하잖아.
- ③ 재룡 : '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야, 장인과의 싸움에서 넉살 좋게 맞대응하며 통쾌하고 보기 좋게 이기잖아.
- ④ 명민 : 점순이는 적극적이고 개성적인 인물이야, '나'를 배후에서 조종하기도 하지만, 장인과 '나'의 싸움에서도 엉뚱하게 장인편을 들잖아.
- ⑤ 재성 : 장인은 의뎉하고 교활하며 악삭빠른 인물이야, 혼인을 핑계로 '나'에게 일만 시키고 돈 한 푼 주지 않잖아.

4. 이 글에서 점순이가 이중적 태도를 취한 까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나'의 순박하고 어리숙하며 미련한 행동에 대한 반발심
- ② 혼인을 앞 둔 여자의 심정과 자식으로서의 효에 대한 갈등
- ③ 시집가고 싶은 마음과 집안 사정을 생각하는 마음

사이의 갈등

- ④ 자신이 직접 아버지에게 말을 하지 못하니까 '나'를 부추긴것임.
- ⑤ 예비 신랑보다는 아버지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

5. ㉠~㉣을 실감나게 표현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 인상을 험하게 쓰고, 목소리를 높여서
- ② ㉡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과 애절한 목소리로
- ③ ㉢ 부드러운 말씨와 달래는 듯한 표정으로
- ④ ㉣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몹시 차리는 표정으로
- ⑤ ㉤ 다급한 목소리로, 조금 빠르고 높은 어조로

6. 다음 ()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언어만으로 생각과 느낌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언어 외에 다른 표현 수단도 이용하여 의사 소통을 한다.

(1) (㉠) 표현 : 얼굴 표정이나 눈빛, 몸짓, 상대방과의 거리 등의 표현 방식을 가리킨다.

(2) (㉡) 표현 : 음성언어에 수반되는 강세, 높낮이, 억양, 속도, 목소리 크기 등의 표현 방식을 가리킨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지껄이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하고 엇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쫘알거린다. 댜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된다는 걸 그럼 어떡헌담!"하니까,

"심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죽하니 튼들여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에미 앓은 황새 새끼처럼 가여웁다 했을 것이다.

(나)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펍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가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튼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샷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구 뭐구 계집 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쭉해져서 입맛만 짹짹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그래, 거진 사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 "

글쎄, 이 자식!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떴나?" "㉠빙모님은 참새 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열 날 지유?(사실 빙모님은 점순이보다도 컷배기가 작다)"

(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어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어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 솜으로 손수 지저 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갔다.

(라) "아! 아! 이놈아! 놈라,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찬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놈라, 놈, 놈, 놈, 놈라."

그래도 안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 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남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댕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마)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머물렀던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구두 그걸 가만 뒤?"

"그럼 어떡허니?"

"임마, 봉필일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 놓지 뭘 어떡해?"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 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잔까지 쳤다. 놈이 번히 팔팔은 하지만 그래 놓고 날 더러 석유 값을 물라구 막 찌다우를 붙는다. 난 어안이 병병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 지껄이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구 있을 테냐?"

"영득이는 일년을 살구두 장갈 들었는데 넌 사년이나 살구두 더 살아야 해?"

"네가 세번째 사원줄이나 아니? 세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두 분하다. 이 자식, 우물에 가 빠져 죽어."

7.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김유정의 단편 소설로 해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 ②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③ 작품 속의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④ 배경은 1930년대 봄, 어느 산골 마을이다.
- ⑤ 토속어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8. (가)~(마)를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배치한 것은?

- ① (나)-(가)-(다)-(라)-(마)
- ② (나)-(마)-(가)-(라)-(다)
- ③ (나)-(가)-(라)-(마)-(다)
- ④ (나)-(마)-(가)-(다)-(라)
- ⑤ (마)-(나)-(가)-(라)-(다)

9. 등장 인물의 성격을 바르게 분석한 것은?

- ① 점순 - 적극적이고 당돌하며 야무지다.
- ② '나' - 낙천적이며 순박하며 지혜롭다.
- ③ 장인 -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생각한다.
- ④ 구장 - 우유부단하나 생각이 깊고 책임감이 강하다.
- ⑤ 뭉태 - 어른에 대한 예의와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

10. 이 글의 주된 갈등 관계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 ① 마름인 장인과 소작인인 뭉태
- ② 성례를 원하는 '나'와 시간을 끌려는 장인
- ③ 장인에 대해 부정적인 뭉태와 긍정적인 '나'
- ④ 소극적인 '나'와 적극적인 점순이
- ⑤ 개방적인 '나'와 보수적인 사회

11. ㉠~㉤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구장을 찾아가 '나'의 행동을 원망하고 있다.
- ② ㉡ : 언어 외적 표현으로 무관심을 표현한다.
- ③ ㉢ : 빙모를 참새와 비교,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 ④ ㉣ : '나'를 회유하는 말로 장인의 성격을 보여준다.
- ⑤ ㉤ :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급하고 빠르게 말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인님! 이제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하고 꼬박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쳐 못 자랐다니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빙빙하고 만다.

(나)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루 발머리에 곱게 내려 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쫄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없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친다.

(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어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 솜으로 손수 지저 주고, 호주

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을 갇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만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라부라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 아! 이놈아! 놈라,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술개미에 찬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놈라, 놈, 놈, 놈, 놈라."

그래도 안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12. 다음은 이 글을 읽고, 모두 토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작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 ① 선희 - 글 (다)를 봐. 점순이의 아버지도 점순이의 키가 빨리 크기를 바랄거야. 예비 사위에게 미안해하고 있어.
- ② 진화 - 장인과 벌이는 황당한 싸움도 그렇고, 사투리와 비속어의 사용으로 고전문학의 골재미를 느낄 수 있어.
- ③ 환일 -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사투리를 실감나게 구사해서 글이 살아있는 것같이 느껴져.
- ④ 회자 - 이야기의 순서가 역순행적이고, 결말을 절정 중간에 배치하니까 실제로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재미있어.
- ⑤ 동휘 - 이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다면 여주인공은 적극적이고, 남주인공은 순박하고 어리숙한 연기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캐스팅 해야겠는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쫄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없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 _____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친다.

(나) "장인님! 이제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처 자라야지!"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하고 꼬박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더 잘해야 한단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단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말이 많다. 허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빙빙하고 만다.

(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 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흰칠히들 크건만 이견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험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과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장인님이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 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앗았느라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루 발머리에 곱게 내려 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라)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갈에 벼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썹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온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벗섬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둥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 원!"하고 남 낮짝만 붉혀 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댕돌에다 메꾼코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꺾꺾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끝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죽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 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마)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어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 솜으로 손수 지쳐 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붓을 넣어 주고 그리고,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뚫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갔다.

13. (가)~(마)중 시간 순서로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4. (가)의 대화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에 들어갈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끝을 흐리면서
② 덤덤히 쓴 침만 삼키며
③ 소맷자락을 내끌면서
④ 큰 소리로 화를 내며
⑤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15. ㉡~㉥중 낱말의 뜻이 틀린 것은?

- ① ㉡ 성례 : 혼인의 예식을 치르는 것
② ㉢ 짜장 : 정말로

- ③ ㉔ 툽툽하게 : 약간 통통하게
 ④ ㉔ 골김 : 마음이 언짢아서 성이 나는 김
 ⑤ ㉔ 사경 : 주인이 머슴에게 주는 한해 농사의 대가

16. 이 글을 읽고 감상을 말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월화 : 우직하고 어리숙한 '나'의 행동과 말이 웃음을 자아내게 하지 않니?
 ② 화수 : 맞아. 점순이는 좀 당돌한 것 같지?
 ③ 수일 :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야.
 ④ 일화 : 그런데 점순의 아버지는 '나'의 생각대로 참작하지 않니?
 ⑤ 토월 : 글썄, 난 교활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 성례구 뭐구 계집 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쭉해져서 입맛만 짹짹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그래, 거진 사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

"글썄, 이 자식!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떴냐?"

"빙모님은 참새 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 낳지유? (사실 빙모님은 점순이보다도 컷배기가 작 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꺄꺄 웃더니(그러나 암만 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꿔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툭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두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굽으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툭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근하고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 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니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툭 쟁그러웠다.

(나) 한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아!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

하고 두팔을 허둥지둥 내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쪽 내쫓고 인젠 참으로 죽나 보다 했다. 그래두 장인 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찢찢 땀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눈엔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꼭 움키고 잡아나왔다.

(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담 딸을 데릴사위를 해 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 들였다. 또 한편 놈들이 육만 줄창 퍼붓고 심히도 부려먹으니까 뺨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데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17. (가)의 대화를 희곡의 형식으로 바꿔 써 보았다. 다음 중 대화에 나타난 언어 외적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 ① 장인 :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며) 아, 성례구 뭐구 기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② 구장 : (입맛만 짹짹 다시며) 그것두 그래!
 ③ 나 : (단호한 표정으로)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 다 그 만두구 사경 내슈…….
 ④ 장인 : (화난 얼굴로 때릴 듯 다가서며) 글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보구 떴냐?
 ⑤ 나 : (하늘을 보며 혼잣말 하듯)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 낳지유?

18. ㉠에 담겨 있는 장인의 심리와 가장 유사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웃음은?

- ① 연인 사이처럼 보이는 남녀가 빙판에서 넘어졌으나 서로를 쳐다보며 꺄꺄 웃는다.
 ② 무단 횡단하던 경찰이 이를 지적하는 시민을 보자 꺄꺄 웃는다.
 ③ 대학에 합격한 고교 3학년 학생이 합격 통지서를 보며 꺄꺄 웃는다.
 ④ 30년만에 만난 친구들이 악수를 하면 꺄꺄 웃는다.
 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사람이 난간을 붙잡고 꺄꺄 웃는다.

19. ㉠~㉣중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인 '해학'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다른 등장 인물보다 어수룩하게 설정되어 있다. '나'를 이렇게 설정한 의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독자는 '나'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② 독자는 서술자인 '나'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나'를 관찰하게 된다.
③ 독자는 동정적인 시선으로 '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게 된다.
④ 독자는 '나'를 조롱하고 비판하며 감정을 정화할 수 있게 된다.
⑤ 독자는 '나'의 어수룩함을 통해 해학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 테야유. 그동안 사경 쳐내슈."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러 왔니?"
"그러면 일췌 성례를 해줘야 안하지유. 밤낮 부려만 먹구 해준다, 해준다……"
"글쎄, 내가 안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어름어름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 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밀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 단 가자고 소맷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구 뻘디디구 이렇게 호령은 제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 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나)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새고 개 맞은 봉우리 화전 발을 혼자 갖고 있지 않았느냐. 발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봉, 봉,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

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병을 아직 모르지만)이 날려구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발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이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들라." (중략)

(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말로 지껄이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엇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쫓알거린다. 땀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된다는 걸 그럼 어떡헌담!"하니까,

"심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샅죽하니 튼들여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에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여웁다 했을 것이다. (중략)

(라)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어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 솜으로 손수 지저 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만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라부라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갔다.

(마)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 아! 이놈아! 놈라,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술개미에 찬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덩겼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뉘라, 뉘, 뉘, 뉘, 뉘라."

그래도 안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혈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 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21. 위의 글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순행적으로 재배열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 - (가) - (마) - (다) - (라)
- ② (나) - (가) - (다) - (마) - (라)
- ③ (나) - (다) - (가) - (라) - (마)
- ④ (나) - (다) - (라) - (마) - (가)
- ⑤ (나) - (라) - (마) - (다) - (가)

22. 위의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신 : 사건의 중심인물인 '나'의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사태 판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니까, 독자가 내용에 대해 판단하고 상상할 요소가 제한되는 것 같아.
- ② 기철 : 절제되고 품위있는 우리말과 한자어들을 적절히 조화되어 있어 우아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작품을 이끌어 나가고 있군.
- ③ 진화 : (나)를 보니 왜 이 글의 제목이 "봄봄"인 줄 알겠어. '따뜻한 봄'이 결핍된 인간성 상실의 비정한 세태를 고발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아야겠어.
- ④ 하늘 : '나'의 시선을 통해, '점순'과 '장인'이 벌이는 부녀간의 갈등과 가족적인 화해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군.
- ⑤ 현수 : 현실의 세태가 잘 그려져 있으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인물과 이들이 벌이는 희극적인 사건이 해학과 재미를 느끼게 하는군.

23. 봄을 소재로 다룬 다음 작품 중 '봄'이 일으키는 정감 이 글(나)에 나타난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뉘집을 들어서면은 반겨 아니 맞으니 -이호우, <살구꽃 핀 마을>
- ② 나는 온 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음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③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마을 젊은 처자 꽃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김동명, <봄이 오면>
- ④ 이제 울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모든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호물호물 녹여 버리겠지.
- ⑤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24. (마)를 희곡으로 각색한다고 할 때, ㉠의 대사에 삽입될 지시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준엄하게 호령하며
- ② 가소롭다는 듯이
- ③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는 듯이
- ④ 다급하게 내지르는 소리로
- ⑤ 살기를 띤 음성으로

25. 이 글에 드러난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장인이 나쁘고 교활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② 점순이의 언행은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 ③ 점순이는 '나'와 장인 사이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④ 장인은 '나'와의 갈등을 통해, '나'의 처치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된다.
- ⑤ 장모는 장인의 역성을 듣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불거지는 장인님의 아랫배(가 너무 먹는 걸 모르고 냇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싶지 않다.

"아이구 배야!"

난 몰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도 그대루 눈독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껴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 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 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돌아 오른 풀 한 숲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쑥쑥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 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넌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유!"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 내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 일 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속셈이냐. 이 대가릴 까눌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 세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히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김길 ㉢호박개같애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장인에게 닭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푹푹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 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 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영금영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굵실굵실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펴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나 일 안하고 우리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나까 늦잠잔다구 돌맹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냈다. 사날씩이나 건승 공공,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올상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갈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나."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온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어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 원!"하고 남 낮 짝만 붙혀 주고 고만이다.

26. 윗 글의 밑줄 친 ㉠~㉤의 문맥상 의미 풀이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① ㉠불거지는 - 검고 붉게.
- ② ㉡마름 - 지주의 위임을 받아 소작지를 관리하던 사람.
- ③ ㉢호박개 - 뼈대가 굵고 털이 복실복실한 개.
- ④ ㉣애벌 - 같은 일을 여러 차례 거듭해야 할 때의 처음.
- ⑤ ㉤안달재신 - 몹시 속을 태우며 여기저기로 다니는 사람.

27. 윗 글의 서술상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등장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회화화시키고 있다.
- ② 어리석고, 순박한 주인공의 입을 통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일상적 범주에서 벗어난 상황과 사건을 설정하고 있다.
- ④ 교활한 장인의 술수를 독자와 다른 등장인물들은 아나 주인공만 모르는 상황을 전개시킴으로써 반어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 ⑤ 비속어와 토속어의 거침없는 사용이 돋보인다.

28. 윗 글에 나타난 '나'의 처지를 두고 쓸 수 있는 속담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엽은 아이 삼년 찾는다.
- ② 남 위해 촛불 켜다.
- ③ 눈이 있어도 고무래 정자를 모른다.
- ④ 기러기도 날 때 줄지어 난다.
- ⑤ 소갈이 일하고 쥐갈이 먹어라.

29. 다음에서 자신의 잊속과 욕심만을 채우려는 윗 글의 '창인'과 같은 사람에게 충고할 때 활용하기에 좋은 작품을 하나 고르시오.

- ① 국화야 너는 어찌 三月春風(삼월 춘풍) 다 보내고 落木寒天(낙목 한천)에 네 홀로 피었느냐

- 아마도 傲霜孤節(오상 고절)은 너 뿐인가 하노라
- ② 나비야 靑山(청산)에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가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앞에서나 자고 가자
- ③ 노래 만든 사람 시름도 많기도 많구나
이르다 다 못 일러 불러서 푸는 것인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 ④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後(후)에
바위 끝 물가에 마음껏 노니노라
나머지 남은 일이야 시킬 일이 있으랴
- 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아있겠는가
하늘같은 가없는 은덕을 어떻게 갚을 수 있나요

30. 다음 <보기> 글의 (ㄴ) 속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를 쓰시오.

<보기>

(ㄱ)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채만식의 - 작품과는 대조적으로 김유정의 작품에서는 (ㄴ)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ㄱ)은 어떤 사람의 악행이나 우매함, 또는 사회의 결함이나 악폐 등에 대해 날카롭게 폭로하고 조소하는 표현하는 방식이며 (ㄴ)은(는) 악의 없이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 방식을 의미한다. ‘봄봄’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공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작품 속에 갈등이 나타나며 갈등에 따른 인물간의 상호 공격도 존재한다.

‘나’와 ‘장인’의 사이가 그러하다. 그러나 ‘장인’과 ‘나’의 갈등에서는 어느 한쪽에 작가의 궁극적인 비판이 가해지지 않는다. 그런 만큼 ‘봄봄’은 작가가 인물들에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⑤
- 2) ④
- 3) ③
- 4) ①
- 5) ④
- 6) ㄱ: 비언어적, ㄴ: 반언어적
- 7) ②
- 8) ②
- 9) ①
- 10) ②
- 11) ①
- 12) ①
- 13) ⑤
- 14) ⑤
- 15) ③
- 16) ④
- 17) ⑤
- 18) ②
- 19) ⑤
- 20) ④
- 21) ②
- 22) ⑤
- 23) ③
- 24) ④
- 25) ④
- 26) ①
- 27) ③
- 28) ②
- 29) ④
- 30) 해학